

16. 시제 표현하기(2)

16강에서는...

- 1) 임박한 미래시제 표현을 알아보시다.
- 2) 가까운 과거시제 표현을 알아보시다.
- 3) 경험 조동사를 이용한 표현을 알아보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의 쇼핑

1. 임박한 미래시제 조동사

กำลังจะ (깜랑 짜): ~막 하려는 참이다

- 주어 + กำลังจะ (깜랑 짜) + 동사 + 목적어

หิว	หิว	고프다
ซื้อ	쓰-	사다, 구입하다
เครื่องดื่ม	크르-앙 드-ㅁ	음료
พอดี	퍼-디-	마침, 꼭

ผมหิวน้ำครับ

(품 호우 나-ㅁ 크랍): 저는 목이 말라요.

ดิฉันกำลังจะซื้อเครื่องดื่มพอดีค่ะ

(디찬 캄랑 짜 쓰- 크르-앙 드-ㅁ 퍼-디- 카): 저는 마침 음료를 사려고 하는 참이에요.

[EBS 초급 태국어]

ขาย	카-이	팔다, 판매하다
หมด	몏	전부, 모두/ 다하다, 떨어지다
ปิด	빳	닫다, 끄다
ร้าน	라-ㄴ	가게

ขายหมดแล้วหรือครับ

(카-이 몏 래-우 르- 크랍): 다 팔렸나요?

หมดแล้วค่ะ กำลังจะปิดร้าน

(몏 래-우 카, 감랑 짜 빳 라-ㄴ): 다 팔렸어요. 막 가게를 닫으려던 참이에요.

* 부정문

- 주어 + ยัง (양) + ไม่(마이) + 동사 + 목적어

ขายหมดแล้วหรือครับ

(카-이 몏 래-우 르- 크랍): 다 팔렸나요?

ยังไม่หมดค่ะ หาอะไรอยู่ค่ะ

(양 마이 몏 카, 하- 아라이 유- 카): 아직이에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2. 가까운 과거시제 조동사

เพิ่ง (핑): 방금, 막 ~했다

- 주어 + เพิ่ง (핑) + 동사 + 목적어

ใส่	싸이	입다, 넣다
กางเกง	까-ㅇ 껀-ㅇ	바지

[EBS 초급 태국어]

ไซส์	さい	사이즈
ใหญ่	야이	크다
เปลี่ยน	쁠리-อัน	교환하다, 바꾸다
ให้	하이	~해주다

ผมเพิ่งซื้อกางเกงตัวนี้ แต่ใส่ไม่ได้

(ผม 핑 쓰- 까-ㅇ께-ㅇ 두-아 니-, 때- 싸이 마이 다이)

: 저는 막 이 바지를 샀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มีไซส์ใหญ่ไหมครับ

(미- 싸이 야이 마이 크랍): 큰 사이즈가 있나요?

มีค่ะ ดิฉันจะเปลี่ยนให้ค่ะ

(미- 카, 디찬 짜 뽀리-안 하이 카): 있어요, 바꿔드릴게요.

* 부정문

- 주어 + ยัง (양) + **ไม่(마이)** + **ได้(다이)** 동사 + 목적어

ผมเพิ่งซื้อกางเกงตัวนี้

(ผม 핑 쓰- 까-ㅇ께-ㅇ 두-아 니-)

: 저는 막 이 바지를 샀어요.

ผมยังไม่ได้ซื้อกางเกง

(ผม 양 마이 다이 쓰- 까-ㅇ께-ㅇ)

: 저는 아직 지를 사지 않았어요.

3. 경험 조동사

เคย (คฺ ใ-อี): ...한 적이 있다, ...한 경험이 있다

- 주어 + เคย (คฺ ใ-อี) + 동사 + 목적어

ตลาด	ตั๊ล-า	시장
เปิด	บฺ ใ-า	열다, 켜다
เฉพาะ	차퍼	단지~만

คุณเคยไปตลาดจตุจักรไหมคะ

(คุณ คฺ ใ-อี บฺ ใ-า ตั๊ล-า จัตุจั๊ก มายี 카): 당신은 짜뚜짜 시장에 가본 적 있나요?

ยังไม่เคยไปครับ

(ยัง มายี คฺ ใ-อี บฺ ใ-า 크랍):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ตลาดจตุจักรเปิดเฉพาะวันศุกร์ เสาร์ อาทิตย์

(ตั๊ล-า จัตุจั๊ก บฺ ใ-า 차퍼 완 속 싸오 아-틔): 짜뚜짜 시장은 금,토,일요일에만 열어요.

* 부정문

- 주어 + ยัง (ยัง) + **ไม่(มายี)** + **เคย (คฺ ใ-อี)** + 동사 + 목적어

ผมยังไม่เคยไปครับ

(ผม 양 มายี คฺ ใ-อี บฺ ใ-า 크랍):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ดิฉันยังไม่เคยกินกิมจิครับ

(ดิฉาน 양 มายี คฺ ใ-อี ใ-น 김찌 카): 저는 아직 김치를 먹어 본 적이 없어요.

4. 의복과 쇼핑 관련 단어

① 의복

เสื้อ	쓰-아	옷, 의복
เสื้อแขนกุด	쓰-아 캐-ㄴ 꾹	민소매 옷
เสื้อแขนสั้น	쓰-아 캐-ㄴ 싹	반팔 옷
เสื้อแขนยาว	쓰-아 캐-ㄴ 야-우	긴팔 옷
กางเกง	까-ㅇ 께-ㅇ	바지
กางเกงขาสั้น	까-ㅇ 께-ㅇ 카- 싹	반바지
กางเกงขายาว	까-ㅇ 께-ㅇ 카- 야-우	긴바지
กระโปรง	끄라쁘로-ㅇ	치마
กระโปรงสั้น	끄라쁘로-ㅇ 싹	짧은 치마
กระโปรงยาว	끄라쁘로-ㅇ 야-우	긴 치마

② 사이즈

ไซส์	싸이	사이즈
เล็ก	렉	작다
ใหญ่	야이	크다

③ 가격 흥정

แพง	패-ㅇ	비싸다
ถูก	투-ㄱ	싸다
ลด	룻	(값을) 깎다

[EBS 초급 태국어]

หาอะไรอยู่คะ

(하- 아라이 유- 카): 무엇을 찾고 있나요?

หากางเกงขาสั้นอยู่ครับ

(하- 까-ㅇ께-ㅇ 카- 싯 유- 크랍): 반바지를 찾고 있어요.

มีไซส์ใหญ่ไหมครับ

(미- 싸이 야이 마이 크랍): 큰 사이즈가 있나요?

มีค่ะ ตัวละ 300 บาทค่ะ

(미- 카, 두-아 라 싸-ㅇ 러-이 바-ㅅ 카): 있어요, 한 벌당 300바트예요.

แพงมาก ลดได้ไหมครับ

(패-ㅇ 마-ㅓ, 롯 다이 마이 크랍): 너무 비싸요, 깎아 주실 수 있나요?

4. 대화: 시제 표현하기(2)

น้ำ: คุณเคยไปตลาดจตุจักรไหมคะ

(나-ㅁ) (쿤 크-ㅣ-ㅣ 빠ㅣ 딸라-ㅅ 짜뚜짜 마이 카): 당신은 짜뚜짜 시장에 가본 적 있나요?

ปอนด์: เคยครับ ผมเพิ่งซื้อกางเกงตัวนี้ในตลาดจตุจักร

(빠-ㄴ) (크-ㅣ-ㅣ 크랍, 품 핑 쓰- 까-ㅇ께-ㅇ 뚜-아 니- 나ㅣ 딸라-ㅅ 짜뚜짜)
: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짜뚜짜 시장에서 막 이 바지를 샀어요.

แต่ไซส์เล็ก ใส่ไม่ได้

(때- 싸ㅣ 렉, 싸ㅣ 마이 다이): 그런데 사이즈가 작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น้ำ: ตัวละเท่าไรคะ

(나-ㅁ) (뚜-아 라 타오라이 카): 한 벌당 얼마인가요?

ปอนด์: ตัวละ 300 บาทครับ

(빠-ㄴ) (뚜-아 라 싸-ㅁ 러-ㅣ 바-ㅅ 크랍): 한 벌당 300바트예요.

[EBS 초급 태국어]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다 팔렸나요?
- 다 팔렸어요. 막 가게를 닫으려던 참이에요.

- 저는 막 이 바지를 샀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 바꿔드릴게요.

- 당신은 짜뚜짜 시장에 가본 적 있나요?
-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 큰 사이즈가 있나요?
- 너무 비싸요, 깎아 주실 수 있나요?

< 태국의 쇼핑 >



(출처: https://th.wikipedia.org/wiki/ไฟล์:Thailand_Bangkok_SiamParagon_Night.jpg)

태국은 쇼핑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 관광지마다 대형 야시장이 들어서고,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도 골목골목마다 크고 작은 시장이 펼쳐진다. 물가에서 배를 타고 다니며 시장을 구경하는 수상시장도 관광객의 필수 방문코스 중 하나이다. 도심에는 대형 백화점들도 많다. 백화점은 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세일을 하며 30~70%까지 다양한 할인율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시장에서 쇼핑할 예정이라면 가격 흥정은 필수이다. 최근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 부풀리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지 물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여전히 자칫 잘못하면 바가지를 쓰기 쉽다.

가격을 흥정할 때 쓸 수 있는 다음의 두가지 문장정도는 외워두고, 태국 여행때 활용해 보면 어떨까?

- อันนี้เท่าไหร่ (안니- 타오라이): 이것은 얼마인가요?
- ลดได้ไหม (롯데 다이 마이): 깎아 주실 수 있나요?